



## 지금은 확대지향의 개표방송 중 개표방송은 메커니즘이다

현재근

### 1. 신화에 갇힌 개표방송

4년 또는 5년마다 반복되는 국가 이벤트 ‘총선’과 ‘대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척도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장이기에 그 중요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개표방송은 정말 일회성 이벤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개표방송은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여전히 KBS나 MBC 개표방송의 형식과 내용은 ‘개표방송은 이벤트’라는 신화에 갇혀 있다. 그 문제점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확대지향의 개표방송’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나친 결과 중심의 개표방송이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정작 그 숫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확대지향의 개표방송’의 실체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 먼저 분석 대상은 2007년 12월 19일에 있었던 대선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개표방송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가 245개로 쪼개진 총선보다 하나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선이 분석에 보다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 2. 확대지향 I : 지금은 보여주기식 개표방송 중

먼저 ‘보여주기식’ 개표방송을 지적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본격적인 선거방송 전에 <무한도전>, <무릎팍 도사>와 같은 자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특집형식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확대지향의 매머드 방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누리는 콘텐츠를 많이 보유한 MBC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물론 개표방송의 딱딱함을 오락 프로그램의 부드러움으로 중화시킨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개표방송의 핵심은 전문성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표방송’은 전문성의 범주 내에서 파격을 시도해야 한다. 그 전문성의 범주 내에서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인 행태의 풍자, 선거 과정에서의 뒷얘기, 어록으로 본 선거분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은 선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정치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이런 분야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시도되고 있는 <무한도전>, <무릎팍 도사> 등은 선거와는 별 관련성 없이 <무한도전> 멤버, 최일구 앵커 등을 내세워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 3. 확대지향 II: 숫자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

개표방송에서 보는 수많은 숫자들은 수많은 사연들과 선거과정의 총체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개표방송은 ‘개표방송은 메커니즘’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분석 또는 재현해주지 못한다면 그 개표방송은 죽은 방송이나 다름없다. 선거과정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 각 당의 TV광고, 신문광고, 유세과정, 선거기법, 슬로건 등이 있다. 이런 요소는 각 당의 고민, 시대정신 등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개표 결과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KBS나 MBC 모두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KBS가 TV광고만 분석했을 뿐이다. TV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전 두 번의 대선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DJ와 춤을’, ‘노무현의 눈물’과 같은 광고는 당시 선거판세를 뒤집었다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슬로건 역시 마찬가지다. 노태우의 ‘보통사람’, 김영삼의 ‘신한국 창조’, 김대중의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전략이 함축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파급력이 큰 부분을 다룰 때 개표방송의 묘미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선거과정의 소소함을 다루는 축소지향이야말로 개표방송 본연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 4. 확대지향 III: 진행=전문성+전달력

개표방송이 메커니즘이란 것은 연속성을 의미한다. 이 연속성이 잘 유지 되면 개표방송 당일 전문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MBC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최명길 선임기자가 뉴스데스크에 직접 출현해 대선 주요 현안에 대해 해설하는 코너를 가져왔다. 이는 개표방송 때까지 신경민 앵커 진행, 최명길·박광온 기자의 해설 체제로 이어졌다. 이런 점은 개표방송이 장기간의 메커니즘이란 점에서 연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행자의 경력을 보더라도 신경민 기자는 정치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최명길·박광온 기자는 경력의 대부분을 정치부에서 쌓았다. 특히 최명길 선임기자는 ‘방송클럽 대선후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MBC 대표 정치부 기자라 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과 전문성의 확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방송 진행을 할 때도 최명길·박광온 기자는 직접 마우스를 조작하면서 모니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신뢰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반면 같은 시각 KBS는 9시뉴스 앵커인 홍기섭 기자가 메인앵커를, 이춘구 기자가 해설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MBC에 비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만한 모니터는 없었고, 조명까지 어둡침침했다. 이런 스튜디오 분위기에서 설명 위주로 개표방송을 이끌어가고 하니 숫자와 시각화가 생명인 프로그램에서 전달력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홍기섭, 이춘구 기자의 경력이 과연 전문성을 요하는 개표방송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홍기섭 앵커의 경우는 9시뉴스 앵커로서 무난한 진행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종합뉴스인 9시뉴스와 개표방송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홍기섭 앵커는 현장에서 주로 경제부 기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KBS가 개표방송의 전문성을 다소 간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홍기섭 앵커와 이춘구 기자가 단 둘이서 개표방송을 이끌어가기에는 다소 힘에 부쳐 보였다. 오히려 지난 2002년 대선이나 10·4 남북정상회담 등 특별 생방송에서 뛰어난

진행능력을 보여준 김준석 기자가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에 ‘방송클럽 대선후보 토론회’에 패널로 MBC 최명길 선임기자와 같이 참여했던 고대영 논설위원 정도가 함께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란 견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KBS, MBC에서는 대선, 총선과 같은 대형 특별 생방송에 걸맞은 경력과 프로그램 장악능력을 가진 기자를 장기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전문기자’ 도입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진행을 더욱 빛나게 해줄 화면 및 프로그램 구성을 빼놓을 수 없다. MBC는 출구조사 직후, 실제 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출구조사 결과를 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표시했다. 그리고 MBC 자체 패널 조사를 축적한 지난 수개월간 후보자별 지지 변화 추이, 노무현 및 박근혜 지지가 시기별로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한 변화양상, 2002 대선과의 비교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출구조사 이후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개표방송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KBS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MBC와 같이 결과 분석을 했으나 TV 모니터 대신 말과 상황판에 의존함으로써 전달력이 미흡했다. 더군다나 출구조사 결과를 화면에 계속해서 띄워놓지도 않았다. 하지만 MBC와 달리 여론조사 전문가가 직접 등장해 출구조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는 시도는 신선했다. 다만 설명의 대상의 ‘출구조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아닌 ‘결과 분석’에 치우침으로써 여론조사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대목이 아쉬웠다. 더군다나 여론조사 전문가 2명이 상황판을 이용해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설명요령이 매끄럽지 못해 시청자가 조마조마할 정도였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이전 각종 개표방송에서 즐겨 이용하고 홍보했던 ‘3D 스튜디오’를 왜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방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했

으면 해당 기자가 아닌 사람이 진행할 때, 전달력을 높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된 후에는 MBC가 ‘분당 투표수’를 화면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후보의 득표력을 쉽게 파악하게 했다. 반면 KBS는 97 대선 2002 대선과 화면구성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이가 없다는 점이 아니라 개표방송의 양질의 방송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동명이인 인터뷰’란 코너가 있었다. 이명박, 정동영 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인터뷰한 그 시도 자체는 흥밋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긴장감 있는 개표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에 이 코너가 방영됨으로써 맥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5. 확대지향 IV: 아나운서의 역할 논란

마지막으로 개표방송에서 아나운서의 역할이다. 어느 방송사를 막론하고 출구조사 직후 각 지역별 득표율 또는 총선 방송에서의 당선예상자를 발표할 때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형식을 취한다. 이 역시 개표방송의 확대지향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투입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개표방송의 신뢰성, 전문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라면 ‘발음의 정확성’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이번 대선에서 서울 지역은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승리했다. 이 경우 출구조사를 단순히 읊어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2002년의 데이터 및 기타 여러 요인들을 아는 선거전문기자의 목소리가 같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순간적인 긴박감과 속속 들어오는 결과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앵커멘트에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 추가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같은 목소리라도 절제된 흥분, 놀라움 등으로 미묘하게 표출되는 차이를 가져온다. 이것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개표방송의 묘미인 것이다. 실제로 최근 KBS의 2008년 총선 출구조사 직후, 예상 당선자를 아나운싱하는 과정에서 위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 웬만한 국민들도 다들 알 만한 유명 정치인, 접전지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해 흥기섭 앵커가 급히 대신 읽어주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방송사고에 가까운 것으로 개표방송의 신뢰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일이었다. 따라서 매머드급 인력 투입의 확대지향보다는 선거전문 또는 정치전문기자가 기존 데이터에 기초해 순간순간의 해설을 덧붙이는 축소지향의 전문성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6. 우리가 보고 싶은 개표방송

미국에서 가장 최근 개표방송이었던 2006년 CNN의 중간선거가 우리에게 한 모범이 될 수 있다. CNN은 개표방송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THE SITUATION ROOM’, ‘ANDERSON COOPER 360°’의 특정 코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거양상의 추이를 보도한다. 그리고 선거 당일이면 위 두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울프 블리처(Wolf Blitzer), 앤더슨 쿠퍼(Anderson Cooper), 그리고 선거전문기자인 존 킹(John King)이 모여서 특별 방송 형식으로 진행할 뿐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간 선거흐름의 보도상 심화·해석이 가능했다는 점이었다. 즉,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앵커들이 같은 무대에 선 것을 제외하면 평소와 다른 점이 없다. 또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의 확대지향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이는 연속성을 지니게 돼 시청자들에게도 개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평소 이들 앵커가 해당 분야에서 지닌 커리어를 보게 되더라도 그 중량감은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KBS, MBC가 뉴스전문 채널이 아니기에 이를 당장 똑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코너를 마련해 최대한 연속성을 가지려는 시도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 7. 이제는 신화를 깨야 할 시점

따지고 보면 선거라는 것이 대선과 총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각종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의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감안하면 몇 개월이 멀다하고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은 ‘선거공화국’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여기에 각 선거의 법정 선거기한이 2주일, 그리고 총선의 후보자 공천과정과 대선의 후보자 경선과정 등을 고려하면 선거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일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는 일회성 이벤트다’라는 신화는 깨뜨릴 필요가 있다.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선거전문기자’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선거철에만 임시적 운영되는 선거보도팀의 기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상시적으로 선거 취재에만 집중하는 기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선거전문기자가 평소의 여론동향, 선거이슈 등을 주기적으로 보도하게 되고 개표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연속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표방송은 메커니즘’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개표방송의 문제점은 ‘확대지향’이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TV프로그램의 생명은 그 속성에 충실함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개표방송은 엔터테인먼트, 보여주기, 전문성 중 분명 전문성의 영역에 해당한다. 개표방송은 또한 단순히 그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 선거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의 표출이다. 따라서 이를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이벤트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숫자 보여주기’일 뿐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개표방송에 필요한 것은 선거 메커니즘에 충실한 ‘축소지향의 개표방송’이다.